

한국 전통 석가산의 유형과 역사적 변천

윤영조* · 윤영활**

*강원대학교 대학원 조경학과 · **강원대학교 조경학과

Types and Historical Transition of Korean Traditional Seokgasan

Yoon, Young-Jo* · Yoon, Young-Hwa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Kangwon National Universit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eokgasan which is artificial rock mountain had been developed into one of the axes of traditional rock landscape of Goryeo period and Joseon period as the central component of Korean traditional landscaping, but the legacy was cut off at the present.

In the middle of the Goryeo period, the Seokgasan made by piling rocks which were started from replicating miniature landscape has been developed into presenting the symbol and Seokgasan so it faced the new transition period of traditional rock garden culture. Seokgasan so it as small knoll, the Korean traditional Seokgasan was made differently the the surrounding landscape with big Seokgasan in China which overwhelms so it harmonize the surrounding landscape to build Korean style of the Seokgasan.

This study is the objective investigation based on the old literature and the field remains, so it aims to so it comprehend the type of Seokgasan and developmental forms.

A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5 types of Seokgasan such as rocks piling on a pond, piling rocks, rocks in a pond, rocks on a ground, rock in a pot etc. has been developing in addition to the rocks which the oddly shaped rock is piled up as the basic framework. Among those, the piling rocks on a pond of Seokgasan which means water flows in Seokgasan is the representative Seokgasan which has been continued since the middle of the Goryeo period until the end of the Joseon period.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the foundation which will succeed to legacy of Seokgasan tradition which was cut off and to develop by recovering historical landscaping value and identity of Seokgasan.

Key Words: Artificial Mountain, Piling Rock(疊石), Pond, Pot

국문 초록

석가산은 한국 전통조경의 중심적 구성요소로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통 석경관의 한 축을 이루며 발달하여 왔으나,

Corresponding author: Young-Hwal Y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Tel.: +82-33-250-8343, E-mail: hwal@kangwon.ac.kr

현대에 와서 그 맥이 단절되었다. 고려 중기 모사적 축경식에서 출발한 첩석 석가산이 점차 사의적 석가산으로 발달, 변천하면서 전통 석경관 문화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한국의 전통 석가산은 중국의 주변경관을 압도하는 거대한 석가산과는 달리 소동산형으로 주변에 조화되게 한국적 석가산 문화를 구축하였다.

이 연구는 고문헌과 현장유적을 근거로 한 실증적 조사로서 석가산의 유형과 발달양상을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조사결과 석가산은 괴석을 쌓아올린 첩석형을 기본 골격으로 지면 첩석형, 첩석형, 지중형, 치석형, 분형 등 다섯 유형이 발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석가산에 물이 흐르는 지면 첩석형 석가산은 고려 중기 도입된 이후부터 조선 후기까지 성행되어온 대표적 유형이다.

이러한 연구는 석가산의 조경문화사적 가치와 정체성을 회복하여 단절되어 온 석가산의 전통의 맥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데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인공산, 첩석, 못, 분

I. 서론

돌은 태고의 역사성과 불변성을 지닌 상서로운 존재로서, 특히 기암이나 괴석은 예부터 자연숭배사상의 대상으로 정령을 지닌 영물로 여겨왔다. 석태미를 중시한 괴석 덩이는 굳고 곧은 덕을 갖고 있어서 군자의 벗이 됨에 마땅하다는 관념적 사고에서 지조와 절개를 중시하는 선비정신의 표상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석가산은 이러한 돌의 요묘한 심미성과 기괴한 자태를 지닌 괴석을 이용해 인공 돌산을 뜰에 쌓거나 치석해 산수경관의 상징성과 경관미를 가까이서 감상한 석경관의 한 형태이다.

중국의 석가산 문화는 송나라 때 태호석을 소재로 한 대규모 인공가산이 조성되면서 첩석 가산이 발달되는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은 시대인 고려시대에 석가산이 발달되어 궁궐과 민간에 널리 성행하며 조선시대로 계승되면서 석가산이 다양한 양상으로 변천하게 된다. 특히, 조선시대에 중국 명, 청의 사신으로 다녀오며 기록한 기행문인 '연행록' 등에는 수도 연경(현 북경)의 많은 석가산들이 묘사되어 있고, 조선 중기 민인백의 『태천집』 '조천록'¹⁾에는 중국 강남 소주지방의 석가산도 소개되는 등 중국의 석가산이 국내에 다수 알려지면서 석가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그러나 중국의 첩석 가산이 주변경관을 압도할 정도의 거대하게 축적된 구조와는 다르게 국내의 석가산은 소괴석을 쌓아 모사적이고 사의적인 소동산형 석가산을 조성하여 주변의 연못, 정자 등과 조화로운 경관을 이루는 한국적 석가산 문화를 발달시켰다. 이러한 석경관 조성은 통일신라 이전의 토축 가산을 만들고 경석을 주변에 첩첩하여 산수경관의 풍치를 재현시키고자 한 경석배치법과는 다른 성격이다. 한국의 석가산은 첩석 석가산을 기본 골격으로 발달하는 과정에 괴석 덩이 개체도 추상적 개념의 석가산으로 받아들여 더욱 사의적이며 여러 유형의 석가산 형태로 발달, 변천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 석가산

은 많은 문인과 세인들 사이에 산수자연을 음미하는 사유의 대상경물이 되었다.

석가산에 관한 선행연구로는 윤국병(1982)의 한·중·일 첩석기법 비교를 통한 한국 석가산의 일부 유적과 문헌적 연구 그리고 유병림 등(1989)의 중국과 한국 석가산 문화의 개요적 연구 등에 머물러오다 최근에야 석가산에 관한 구체적인 고증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그러나 석가산 연구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석가산 문화가 연계되지 못하여 왔고, 또 주로 석가산의 개별적인 해제식 연구로 진행되어 석가산의 전반적인 측면에서의 유형적 분류와 변천에 관한 연구는 진전을 보지 못했다.

석가산의 유형적 분류의 선행연구를 보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종목(2005)의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산수-조선시대의 가산 연구'와 박경자(2008)의 '조선시대 석가산 연구' 등에서 석가산, 가산, 목가산, 옥가산 등 돌과 나무구조의 가산을 총괄한 소재적 측면의 용어적 구분과 연구가 수행되었고, 윤영환(2009)의 '고려시대 석가산의 시원적 고찰'에서는 돌 소재 석가산의 시원성과 관련한 형태 구조적 측면에서 지면 첩석형, 첩석형 등의 유형적 구분의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석가산 문화와 이를 계승한 조선시대의 석가산의 발달과 변천과정에는 일정한 구조적 형태와 공간적 틀을 지닌 여러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고문헌과 현장유적에 근거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한국 전통 석가산의 형태적 유형 및 그 변천상(變遷相)을 구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단절되었던 한국의 전통 석가산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전통의 맥을 계승하여 전통공간의 복원 및 현대적 재현과 활용에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연구방법

1. 연구의 범위

시대적 범위는 석가산의 기본 틀이 정립되는 고려시대와 이

를 계승하여 다양한 형태의 양상으로 정착화 되는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포함하였다.

석가산의 의미론적 범위는 고려시대 중기 이후 소공간에 돌을 주소재로 축경적으로 꾸민 동산형 침석을 기본 골격으로 한 집체적 석가산이 전형적인 석가산이나 조선 초부터 괴석당이 자체도 석가산으로 관념화시켜 지칭하며²⁾ 뜰과 실내에 여러 형태로 완상되어온 괴석³⁾도 석가산 범주에 포괄적으로 포함하였다.

2.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자료

고려시대 침석구조의 석가산 또는 가산이 전통 경관물로 등장한 이후 석가산 개념과 의미로 직접 적시된 문헌자료 및 현존유적을 근거로 하여 문헌적 분석, 문헌과 현존유적의 병행 분석 그리고 현존유적 분석 등에 의한 실증적 접근 방식으로 석가산의 발달 양상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하고 그 변천과정과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문헌 자료는 고려와 조선시대의 문헌을 대상으로 석가산 관련 용어나 내용이 수록된 한국문집총간 문집류의 시·기·록·찬·부(詩·記·錄·贊·贈) 등에서 기사명 44건, 본문 43개 등 87개 문집자료와 고려사(2), 조선왕조실록(3), 국조보감(1), 고도면(2), 기타 문헌(9) 등 총 104개 석가산 관련 자료를 분석해 석가산의 유형과 특성이 비교적 상세히 기술된 32개 문헌 중 대표적이며 핵심적인 문구 39개 표본자료를 추출하여 그 원문을 본문에 제시하고, 유형화 및 발달과 변천과정의 분석적 기본자료로 활용하였다.

2) 석가산의 유형구분

석가산의 유형화는 각 문헌에 돌을 소재로 한 '석가산' 또는 '가산(토축 가산 제외)'이라 적시된 문헌 및 고지도 그리고 현존유적을 근거로 침석(疊石), 포치 또는 집체, 개체 등의 조석 형태, 유수(流水), 수중(水中), 폭포 등의 수경 연계성 그리고 실내, 실외 등의 장소성 등을 분석해 그 형태적 구조와 공간적 배치에 따라 패턴을 구분한 후 유형화하여 그 특성을 시대 순으로 기술, 제시하였다.

선별된 사료적 석가산 관련문헌은 조사표에서 유형별로 그 대상 공간, 문헌명, 원전문구 그리고 관련 핵심어로 구분하였다. 또 본 문장에서 유형구분의 기준이 되는 핵심 원문을 해석과 같이 제시해 놓았고, 장문이거나 같은 유형의 여러 유사 내용의 문구는 이를 함축 요약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유형을 개념적 모식도로 작성하고, 한국 석가산의 발달 양상 및 변천과정의 특성을 고찰적으로 종합하였다.

III. 한국 전통 석가산의 이론적 고찰

1. 석가산의 어원

전통적으로 인공산을 형상화한 용어로는 조산, 축산, 가산, 석가산 등이 사용되었는데, 조산 및 축산은 이들을 포괄해서 많이 쓰인다. 이중 가산(假山)은 진산(眞山)의 대조적 의미로서 흙으로 조성한 토축 가산과 돌로 쌓은 가산으로 구별했는데, 이 돌을 소재로 산을 모사한 인공산이 곧 '석가산(石假山)'으로 '가산' 용어와 혼용하여 쓰였다. 중국에서는 명나라 계성(1582~?)이 저술한 『원야』의 '가산기'에 돌로 쌓은 것을 첩석(掇石), 흙을 북돋은 것을 원토(圍土)라고 구분하면서 석가산을 '첩산(掇山)' 즉, 첩산(疊山)이라 하였으며, 가산의 한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다(김성우와 안대희 역, 1993). 오음(吳音)에서는 첩(疊)을 첩(掇)이라 읽는다.

국내에서의 조산 또는 가산의 역사를 보면 고구려 안학궁 복원에 인공 '축산'⁴⁾과 『삼국사기』 백제 진사왕 7년(391년) 춘정월 조에 위례성 궁원에 "궁궐을 중수하며 연못을 파고 인공산을 만들었다(重修宮室 穿池造山)."⁵⁾에 '조산(造山)', 그리고 통일신라 문무왕 14년(674년) 2월조에 "안압지 궁내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다(宮內穿池造山)."⁶⁾의 '조산'이란 명칭이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흙으로 쌓은 가산구조이다. 이 안압지에는 조선 초 『동국여지승람』 권21 '경주 고적'에 "돌을 쌓아 무산십이봉을 본뿔다(積石爲山 象巫山十二峰)."⁷⁾는 '적석위산(積石爲山)'이란 문구가 나오는데, 이는 호안석축 위에 12봉의 인공산을 조성했다는 의미로 보인다.

고려 중기 예종(1079~1122) 때 본궐 청연각 뜰에 돌을 쌓아 산을 만들었다는 '첩석성산(疊石成山)'이라 표현된 축경적 석가산이 만월대 본궐에 조성된 후 고려 의종 6년(1152년) 4월조에 "괴석을 모아 수창궁 복원에 가산을 쌓았다(聚怪石 築假山 于壽昌宮北園)."⁸⁾는 '가산'이란 석가산을 의미하는 용어가 처음 기록에 보인다. 이후 고려 후기 안축(1282~1348)의 『근재집』에서도 석가산을 '가산'이라고 칭하고 있다. 그러나 석가산이라 지칭한 용어는 조선 초에 가서야 보이며, 조선 초에는 토축 조산도 가산이라 부르면서 석가산과 같이 쓰고 있다(윤영환, 2009). 고려 말 이공인 화원의 첩석 석가산에 대해 조선 초 채수(1449~1515)는 『나재집』에 '가산'이라 했고, 조선중기 임운(1517~1602)은 『첨모당집』에서 석가산으로 지칭하고 있다.

조선 초 유명했던 성임(1421~1484)의 석가산을 보고 지은 제명에 성현, 김수운, 이승소 등은 '석가산'으로, 강희맹과 서거정은 '가산'이라고 두 명칭으로 각기 부르고 있다. 이중 김수운(1410~1481)의 『속 동문선』 제13권 '석가산기'에 진산이라 하지 않고 가짜인 가산이라 이름부친 이유에 대해 세인의 말을 빌려서 "산이란 실상 하늘 닿게 높은 것인데, 뜰의 사이에 있으

니 진산이 아니다. 그러므로 가산이다.”라고 하면서 “산은 흙이 있는 법인데 돌밖에 없으니 가산이라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성입의 석가산보다 앞서 조선 초 안평대군 이용(1418~1453)의 원림 경치를 담은 『비해당사십팔영』 중 40영 ‘가산연람(假山烟嵐)’ 소표제에 가산 용어가 보이는데, 이는 토축 가산이며,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 권16 시에도 토축 가산이 보인다. 『국조보감』 제7권 세종조 26년(1444년)에 풍수가가 가산을 만들어 지맥을 보충하게 하기를 청했다는 토축 가산이란 용어도 풍수와 관련해 사용되고도 있다.

이와 같이 조선 초에는 석가산은 ‘석가산’ 또는 ‘가산’이란 명칭으로 병용되면서 흙으로 쌓은 조산도 가산이라고 포괄적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문집류에 보이는 석가산 또는 가산은 대부분 돌 소재의 석가산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괴석을 쌓아올린 석가산 구조의 형태로는 첩석성산(疊石成山), 첩석위산(疊石爲山), 누석위산(累石爲山), 괴석성산(怪石成山), 취군석첩(聚群石疊) 등의 의태어가 사용되었다. 석가산의 전형적 형태는 바로 이 첩석형 석가산을 뜻한다. 그러나 석가산과 괴석이 고려 말에 궁궐과 민간에 경물로 널리 성행하면서 조선 초에는 괴석 개체도 석가산이라 부르는 풍조가 나타났다. 조선 초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에서 괴석덩이를 석가산이라 한 호칭이 보인 이후 많은 문집류에서 괴석 자체도 추상적 개념의 석가산으로 상징화시켜 부르며, 괴석을 뜯고 실내에서 여러 형태로 애완애석하면서 조선시대 후기까지 석가산 범주로 포괄적으로 관념화시켜 사용되고 있다. 괴석을 지표에 포치할 때는 석석(植石) 또는 치석(置石)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석가산을 상징하는 특별한 완상품으로 옥으로 만든 옥가산(玉假山)이 실내에 등장하였는데, 조선 중기 김우옹(1540~1603)의 『동강문집』 ‘사정한강구송옥가산’에는 옥으로 가산을 만들어 병속에 장식한 실내 완상용 옥가산과 조선후기 이원조(1792~1872)의 『응와집』 ‘석가산적시서’ 등에는 버루를 겸한 완상용 옥가산도 보인다.

조선 후기 1828년 북경에 다녀온 박사호의 청나라 견문기 『심전고』에는 상점에서 석가산, 옥가산, 목가산을 소품으로 팔고 있다고 하고 있다.

2. 한국 석가산 문화의 정착

돌을 경석으로 이용하는 한국의 석경관 문화는 일찍이 삼국시대 이전부터 발달해 왔으며, 특히, 고구려 안학궁과 신라 안압지 등에 인공산을 쌓고 주변에 경석을 배치해 자연스런 산수경관을 재현시킨 우수한 석경관의 자취를 남겼다.

그러나 고려시대 들어서는 통일신라 이전의 석경관과는 달

리 중국 북송 때 태호석 등 명석을 쌓는 가산 축조법이 성행하면서 국내에도 돌을 쌓아 인공산을 만드는 축경적 첩석 석가산이 고려 궁궐에 조성된 후 민간에도 널리 유행하였다(윤영활, 2009). 석가산이란 바로 이 첩석형 석가산이 전형적인 기본골격으로 한국 석경관 문화의 새로운 창조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고려 예종 11년(1116년) 조성한 본궐 청연각의 석가산은 중국 송나라 휘종이 정화 7년(1117년)에 시작해 선화 4년(1122년)에 완공한 간악 가산에 태호석을 첩석해 만든 가산보다 앞서 만들었다. 중국은 당나라 때부터 태호석을 경석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지만 당의 백낙천도 자신의 강남 정원에 태호석을 늘어 놓고 감상했을 뿐 당, 송시대 민간원림에서는 ‘첩석성산(疊石爲山)’의 가산을 만들지 않았고, 중국의 첩석 가산은 원, 명, 청의 시대를 걸쳐면서 사의식 산수원림의 새로운 길을 열며 그 발전의 기초를 닦은 것이다(심우경, 이창호, 심현남 역, 2008: 275).

중국의 석가산 문화는 한국의 석가산 발달과 시대를 같이 하고 있으나, 한국적 첩석형 석가산은 중국의 태호석 등 거대한 경석을 사용해 주변을 압도할 정도로 큰 규모의 석가산과는 달리 소괴석을 소재로 한 작은 동산형 석가산을 축조하여 휴먼 스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주위 정자, 연못 등 시설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인 한국적 석가산으로 발달시켰다.

고려시대 축경적이며 단순한 모사적 산수경관에서 출발한 한국의 석가산은 조선시대 들어 문인들 사이 애석애완의 취향이 성행하면서 석가산을 『사가집』, 『해동잡록』, 『풍계집』 등 많은 문집류에서 삼신산(蓬萊·方丈·瀛洲)과 중국의 오악(嵩山·泰山·華山·恒山·衡山) 등 영산을 선계에 비유해 표상하기도 하고, 또한 석가산에서 지자(知者)와 인자(仁者)의 교훈, 와유(臥遊)하며 천석고황(泉石膏肓)의 치유, 진산을 대신한 산수경관의 체험 등을 추구하면서 사의적이며 실용적인 경물로 선호되었다.

또한, 고려시대 첩석 위주의 석가산이 조선시대 들어 괴석덩이 개체도 석가산으로 부르며 석가산 범주가 집체적 틀에서 개체적 관념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모사성과 사의성을 함축하는 형태의 석경관은 중국, 일본이나 국내의 통일신라 이전에는 볼 수 없는 한국 전통조경문화의 독특하고 창조적인 새로운 장으로 한국적 석가산 문화로 정착화되었다.

IV. 결과 및 고찰

1. 석가산의 유형

1) 지변 첩석형

돌을 첩첩이 쌓아 여러 봉의 산 형세를 만드는 첩석(疊石)은 석가산의 기본골격이다. 지변(池邊) 첩석형은 가산에 물이 흐

르는 유수(流水)구조로서 이 석가산에서 흘러내린 물을 받아 못이나 계류형 곡지를 조성한 구조이다(그림 12a 참조). 이 지면 첩석형이 기록상 처음 보이는 것은 고려 중기 예종 11년(1116년)으로 만월대 본궤 청연각 앞뜰에 조성된 후 고려 18대 의종 때 수덕궁 이궁 태평정에도 이와 같은 지면 첩석형 석가산이 조성되었다.

조선시대 들어 제일 먼저 보이는 지면 첩석형은 조선 초 성임(1421~1484)⁵⁾의 한양 인왕산 저택 원림의 석가산으로 높이는 한 장(약 3m) 정도로 쌓고 소나무, 대나무, 그리고 여러 꽃들을 심어 울창한 숲으로 만들었다. 서거정(1420~1488)의 『사가집』 권1 '가산기'에 “물을 대어 비폭을 만들고 급류도 만들고 웅덩이도 만들었는데 못이 길고 넓은 곳은 몇 자 되지 않는다(注水爲飛瀑 爲犇川 爲泓池 池之脩廣 亦不過數尺).”고 하였다. 성임이 처음 석가산을 만들 때는 넓은 곳이 불과 1m도 채 안 되는 계류형이었으나, 신용개(1463~1519)의 『이요정집』 '지돈영 부사성공신도비명'에 의하면 “집 후정 언덕에 춘취정을 지어 날이 좋거나 한가한 날에 반드시 올라 스스로 즐겼다. 또, 돌아가신 아버지(성임)의 석가산을 증수하고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그 곁에 작은 정자를 만들어 '이요'라고 편액하였다.”고 하였다. 즉, 성임 때 조성한 석가산을 아들 성세명(1447~1510)이 다시 쌓고 계류형 곡지였던 것을 작은 못으로 개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요정집』에는 “원림의 경치가 나라에서 으뜸이다(園林之勝 甲於國都).”라고 원림이 매우 뛰어났음을 극찬하고 있다(표 1 참조). 이 조선 초 성임의 석가산은 고려시대 청연각 뜰에 조성된 지면 첩석형을 계승한 석가산으로, 성현(1439~1504)의 『허백당집』을 비롯해 서거정 등 당

대 저명한 권신이며 문장가들의 시와 기문 등 10여 편에 성임의 석가산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조선 초 가장 대표적인 석가산이다.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가 보길도에서 은둔하며 꾸민 원림에도 이런 유형의 석가산이 조성되었다. 윤선도의 『보길도지』 '곡수당'에 “동남쪽에도 방대를 높이 축조하고 대 위에는 돌을 쌓아 석가산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한 장(약 3m) 남짓하다(東南隅 高築方臺 臺上疊石爲假山 高可丈餘).”고 했다. 그리고 계류를 인수해 가산 허리에 흙통을 통해 못으로 쏟아지게 하는 비래폭이라 부르는 폭포를 만들었다(표 1 참조). 이 보길도 곡수당터(그림 1 참조)의 현존 소방지 동남쪽에 있었던 지면 첩석형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조선 후기 정약용(1762~1836)은 순조 원년(1801년) 전남 강진으로 유배되어온 후 1808년 다산초당으로 다시 옮겨온 두 번째 봄에 초당 주변의 원림을 직접 새로 계획하고 시공하였다. 『다산시문집』 5권에 “이어 동쪽 못가로 가 그 주변을 넓히고 대오(臺塢)도 새로 만들어 아름다운 꽃과 나무들을 죽 심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바위를 이용하여 가산을 하나 만들었는데, 구불구불 굽이지게 하여 샘수는 물이 그 구멍을 통해 흐르게 하였다(遂至東池拓其匡廓 新其臺塢 列植名花佳卉 因其巖石爲假山一區 迤邐彎曲水泉穿瀉).” 그리고 “덜거덜덜거덜 큰 바위 굴러다가 산에 대어 섬돌처럼 쌓아놓으니 산은 첩첩이 바위를 드러내고 맑은 샘물이 솟아올랐다 구멍을 키우고서 흙통을 대 놓다(砰訇轉巨石 蹇砌因會阜 山骨露嶙峋 泉脈集清瀉 疏竇灌連筒).”고 석가산 조성과정을 기술하고 있다(표 1 참조). 정약용은 새로 초당의 원림을 꾸미면서 동쪽 화오에다 첩석 석가산을

표 1. 지면 첩석형 석가산

구분	원전구문	문헌명	관련 핵심어
고려 청연각	欄楯之外 疊石成山 庭除之際 引水爲沼 巖峯萬狀清淨四徹 洞庭吳會幽勝之趣生 而終宴無憚暑之意	동문선 권 64 청연각기	疊石成山 引水爲沼
고려 수덕궁	日壽德 宮日 殿曰天寧 ... 作太平亭 ... 聚怪石作仙山 引遠水 爲飛泉 窮極侈麗	동사강목 제 9상 의종 11년	聚怪石作仙山 飛泉
성임원림	吾同年昌寧成侯 ... 採作假山于庭除 亦瑰奇可賞矣 ... 又注水爲飛瀑 爲犇川 爲泓池 池之脩廣 亦不過數尺 水清沙白 毛髮可燭	사가문집 권 1 가산기	巖石爲山 假山 石假山 飛瀑 小池
	吾友昌寧成重卿氏 於堂後隙地 巖石爲山 高僅一丈 置甕其後 貯以清泉 穴甕腹 通山腰 細流淙淙然 落爲亂瀑 流爲平地 植諸松竹花卉 蔥鬱成林	사숙재집 권 5 가산찬	
	公由由然一無所與 廉靜閑淡 雅意泉石 作春輝亭于家園後岡 佳晨暇日 必登陟以自娛 又增修先考石假山 鑿小池 構小亭其側 扁以二樂 ... 園林之勝 甲於國都	이요정집 권 12 지돈영부사성공신도비명	
보길도곡수당	東南隅 高築方臺 臺上疊石爲假山 高可丈餘 只取瘦削 不施技巧腰鑿竇中插石筒 自後隱筒引水 由竇中瀉於池 號飛來瀑	보길도지 곡수당	疊石爲假山 飛來瀑
다산초당	一日散步梅下 ... 遂至東池拓其匡廓 新其臺塢 列植名花佳卉 因其巖石爲假山一區 迤邐彎曲水泉穿瀉 : 砰訇轉巨石 蹇砌因會阜 山骨露嶙峋 泉脈集清瀉 疏竇灌連筒 坎液欬盈缶 跳躍涵餽鯤 產育容蟬蚪	다산시문집 권 5 시	巖石爲假山 水泉穿瀉 疏竇灌連筒
지면 석가산축조법	水潤石如不可得 則取軟石琢 造怪石 就池邊疊石積爲山 使巖壑幽深多 種楓松烏竹杜鵑躑躅石竹白合射干之屬 池上又種唐蓼花 山後置大瓮貯水 屈竹汲引自山頂築迤邐池作瀑 其水道以瓦上堅塗則不漏矣 朝夕相對自多奇趣	증보산림경제 권 5 석가산	池邊石假山 疊石積爲山 池作瀑
		임원경제지 이운지 권 1 지면석가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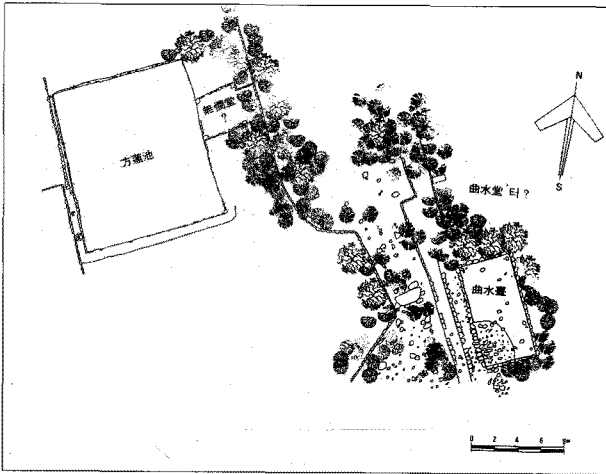


그림 1. 보길도 곡수당 유적 위치도
 자료: 완도군, 1981: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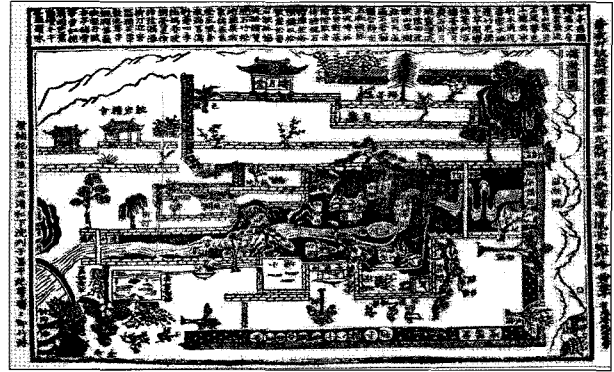


그림 3. 소쇄원도 목판본(175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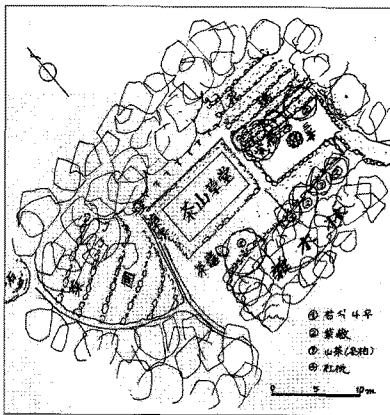


그림 2. 다산 초당 배치도
 자료: 정동오, 1986: 2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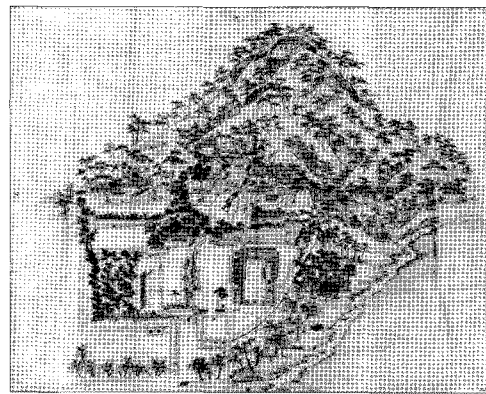


그림 4. 목호정도
 자료: 이기백 소장본, 1815년경 제작.

만들어 석가산 속으로 물이 흐르게 하고 흙통을 대어 아래 연지로 떨어지도록 하였다. 현재 화오 아래 연지와 도서형 석가산만 남아 있다(그림 2 참조).

이 지면 침석형은 성암의 석가산과 같이 물이 흐르고 대부분 초목도 심어 산수풍경을 축경적으로 뜰에 재현시킨 것이 이상적인 지면 석가산으로서, 조선 후기 서유구(1764~1845)의 『임원경제지』 '지면석가산법'⁶⁾에 석가산의 괴석 소재, 식물, 유수 구조, 방지(方池)조성 등 그 축조법을 기술해 놓고 있는 보편화된 기본유형이다.

2) 침석형

침석형은 지면 침석형과 같이 수직적 집체를 형성하는 것은 같으나, 단지 가산에 물이 흐르지 않는 석가산이다(그림 12b 참조). 고려 중기 의종 6년(1152년) 수창궁 복원에 괴석을 모아 이 침석형 석가산을 만들었고, 고려 말 공민왕 22년(1373년) 창건한 이궁 화원에도 이 침석형이 조성되었다(표 2 참조). 특

히, 이 화원의 석가산에 대한 기록이 조선 초 이후 여러 문헌에 보이는데, 채수(1449~1515)는 성종 7년(1476년)에 송도(개경)를 유람하고 지은 『나재집』 '유송도록'에서 "팔각전 뒤뜰에 돌을 모아서 가산을 만들었는데 화초가 아직도 살아 있다(殿後聚石爲假山 花卉猶在)."고 했지만 조선 중기에 들어서 유실되었다.

조선 중기 조성된 전남 담양 양산보(1503~1557)의 소쇄원은 김인후(1510~1560)가 지은 『소쇄원사십팔영』 '가산초수(假山草樹)'에 보면 석가산에 초목이 우거져 있고, 고경명(1533~1592)의 『유서석록』에는 돌을 쌓아 올린 석가산이 정자 옆에 마치 우산을 펼쳐놓은 듯하다고 광풍각 옆의 침석 석가산의 형태를 묘사하고 있다(표 2 참조). '소쇄원도' 목판본(그림 3)에는 광풍각과 상암 사이에 여러 겹을 두른 두 개의 큰 봉우리가 묘사되어 있다(그림 5a 참조). 이 석가산은 초목이 자라는 침석형으로 현재 유실되고 남아있지 않다.

허목(1595~1682)의 『기연집』 '석가산기'는 조선 인조 18년(1640년) 허목이 남해를 구경하고 남주(부안의 옛 명)를 지나다가 한한옹의 별장에 있는 석가산을 보고 지은 글인데, 이 석가산은 산과 바다에서 괴석을 모아 뜰 안에 8차(약 2.4m) 높이의 여러 층의 괴석을 쌓고 골을 깊게 만들었는데, 쳐다보아야 할 정도로 비교적 크며 초화목도 심어 항상 안개가 서려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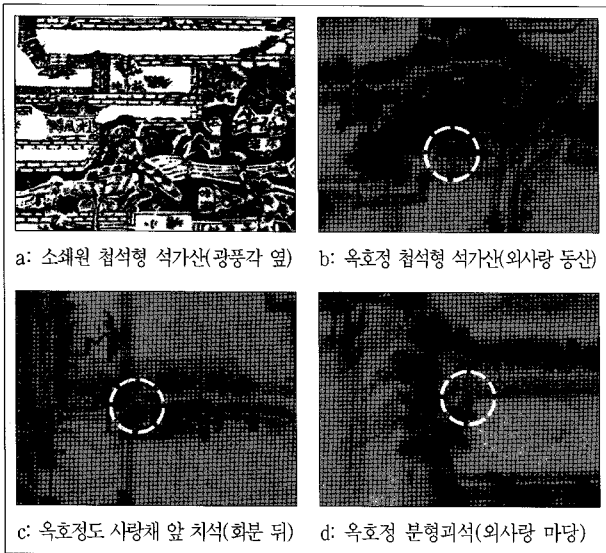


그림 5. 소쇄원과 옥호정도의 부분도

심산유곡의 흥취가 난다고한 침석형 석가산이다(표 2 참조).

『풍계집』은 승려 풍계 명찰(1640~1708)이 대부분 사찰을 돌며 지은 시문집인데, 이 『풍계집』의 ‘석가산기’에 1668년 가을 청봉장로가 시냇가에서 괴이한 돌 하나를 주어 가지고 온 것을 시작으로 돌을 쌓기 시작해 수백 겹에 이르는 석가산을 만들고 초화복을 곁들여 심었다고 한 이 침석형 석가산은 사찰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2 참조).

조선 후기 남용만(1709~1784)의 『활산집』 ‘석가산기’는 남용만이 고향 경주에 낙향해 활산 아래 발들을 캐내 쌓아 모아

만든 높이 3자반(약 1.05m) 정도의 소규모의 침석형이다(표 2 참조).

김조순(1765~1832)의 서울 삼청동 산자락에 있었던 옥호정은 현존하지 않지만 1815년경 제작된 ‘옥호정도’와 『풍고집』에 침석형을 비롯해 여러 유형의 석가산이 도상과 문헌에 보인다. 『풍고집』 ‘석가산오고서증경산직각’에 “돌을 쌓아 진산처럼 만드니 뜰에 마음을 두게 한다. 쌓아 올림에 따라 형상이 생기고 바위틈에 동굴도 생겨난다.”고 하였는데, 사랑채 서편 외사랑 누각 사이의 동산에 이 침석형 석가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표 2, 그림 5b 참조). 이밖에 조선 후기 심육(1685~1753)의 『저촌유고』의 ‘풍악록’ 등 여러 문헌에 침석형으로 추정되는 석가산이 다수 보인다. 이 침석형 석가산은 기괴한 자연적 형태미를 지닌 괴석을 소재로 쌓은 석가산을 품격 있게 보았으나 비용이 많이 들고 괴석 구하기가 어려워 일반석을 다듬어 쌓기도 했다(표 1 참조).

지번 침석형이나 침석형은 산수경관을 가장 잘 재현한 석가산의 기본형으로 이와 같은 전형적인 침석형이 현존하는 것은 찾아 볼 수 없다.

전형적 침석형 구조는 아니지만 조선 선조 31년(1598년)에 세운 한양의 ‘남관왕묘’⁷⁾ 묘우 후정에 잔돌을 밑에 쌓고 그 위에 5봉을 세운 구조의 침석 형태가 서울 후암동에 남아 있었으나(윤국병, 1983), 1978년 현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하면서 사당 앞뜰 기단 지표에 치석한 형태로 변형시켜 복원해 놓았다(그림 6 참조). 일제강점기 우규동(1850~1929)의 경남 양산의 소한정에도 남관왕묘와 유사하게 잔돌 위에 삼봉 괴석을 세워

표 2. 침석형 석가산

구분	원전구문	문헌명	관련 핵심어
고려 수창궁	內侍尹彥文 聚怪石築假山于壽昌宮北園 構小亭其側 號曰萬壽 以黃綾被壁 窮極奢侈 眩奪人目 宴將罷 假山類牝雞鳴	고려시절요 권 11 의종 6년	聚怪石築假山
고려 화원	至花園 園已荒廢 唯入角殿巖然獨存 年久半摧 殿後聚石爲假山 花卉猶在	나재집 권 1 유송도록	聚石爲假山
소쇄원	假山草樹 爲山不費人 造物還爲假 隋勢起叢林 依然是山野	소쇄원사십팔영 소쇄원사실 권 4	假山草樹 累石高
	曠時投 瀟灑園乃梁山人舊業也 … 小瀑之西 有小齋宛如畫舫 其南累石高之翼 以小亭形如張傘	유서석록	
한한옹 장륙와	崇禎十三年九月 穆遊南海上 過浪州 省叔舅閑閑翁於西湖之藏六窩 見庭中石峯數重 其高可仰 蒼然峽吼 硯礪相支 間植佳木具卉 … 蓋翁好奇 嘗於山海間 多得奇怪異石 列之庭除 層高累奇積之及仞而成之 從下而上 皆峭壁層巖 石氣成潤 其谷常陰 其植常茂 其亦得山之性也	기언별집 권 9 석가산기	石峯數重 奇怪異石 層高累奇積
미상 사찰	夫石假山者 聚群石疊 出一假山 … 隨聚于一拳之多 構就其彷彿者 則亂峰峯業 偃石嶙峋 幾至於百數之中 … 怪態不一 琪花瑤草 雜植其間 栩栩然蝶舞 花木芳蘭 封培于中 夏夏然禽聲 此則石假山之奇觀也	풍계집 석가산기	石假山 聚群石疊
활산 가산	活山之下 多石小大遍野 治田者病之 … 累之於庭之一邊 先以大者爲本底 環積而高 漸殺其上 盛其瑣細者於內 雜土而實之 使不何類 大可兩圍 崇三尺有半 遂命曰假山 … 乃種杞於其顛 又其隙罅處 蔓草可生 能遇時而青	활산문집 석가산기	假山 累之於庭
옥호정	累石像眞山 却向庭心起 隨累隨爲形 巖洞生造次 譬如書物者 初但臨空紙 執毫想其態 現眼既成指 佳卉種便生 小松移不死 幽處悅雲氣 蒼翠入隱几 我方托膏肓 朝暮對之喜	풍고집 권 4 석가산오고서증경산직각	石假山 累石像眞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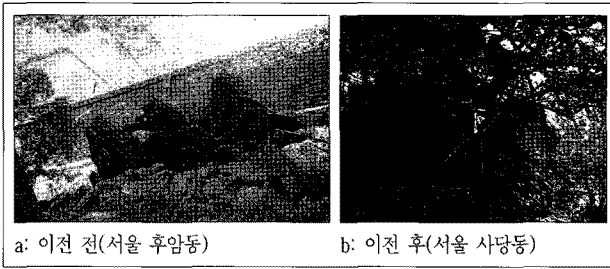


그림 6. 남관왕묘 석가산
자료 a: 윤국병, 1983: 98.



그림 7. 소한정 석가산
자료: 이은창, 1983: 244.

놓은 형태가 있었다(그림 7 참조).

3) 지중형

지중형(池中型)은 못 안에 괴석을 쌓아 섬을 만든 침석 도서형(그림 12c 참조)과 괴석을 개체로 안치한 지중 괴석형이 있다. 대표적 침석 도서형은 조선 초 채수(1449~1515)의 석가산으로 기록상 처음 보이는 지중 침석형이다. 채수는 일찍이 고려 말 공민왕 때 조성한 팔각정 뒤뜰 화원에 남아있던 침석형

석가산을 답사했고, 조선 초 가장 유명했던 성임의 지면 침석형 석가산도 둘러보았다. 그러나 채수는 자신의 별서에 이들과는 달리 못 안에 도서형 침석 석가산을 조성하고 가산에 폭포도 만들었다. 채수의 『나재집』 ‘석가산폭포기’에 가산의 높이는 5자(약 1.5m) 정도이고, 폭이 7자(약 2.1m)로 폭포가 2단으로 떨어진다 하고 있다(표 3 참조). 이 채수의 지중 석가산은 성현의 『허백당보집』에서도 소개되고 있다.

조선 후기 조성된 경남 함안 무기연당에도 침석 도서형 석가산이 그 유적과 하환정도¹⁰⁾에 남아 있다.(그림 8a, 9 참조) 주재성(1681~1743)이 영조 4년(1728년) 이인좌의 난 때 세운 공을 칭송해 그 직후 세운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못 안의 석가산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여러 형태의 괴석을 모아 쌓았으며 가산에 ‘백세청풍’, ‘양심대’란 명문입석이 세워져 있는데, 이러한 명문입석은 소쇄원의 석가산에도 있었다⁸⁾. 그리고 박준원(1739~1807)의 『금석집』에도 뜰에 작은 방지를 만들고 못 가운데 괴석을 쌓아 봉래산과 영주산을 상징화한 도서형 침석 석가산이 보인다(표 3 참조).

이러한 도서형이 문헌과 유적으로 남아있는 곳이 다산초당 연지의 지중형 석가산이다. 정약용(1762~1836)의 『다산시문집』 권5에 “그전부터 정자 동편의 못이 좁고 작은 방아확만 하여 산 밑까지 닿게 활짝 넓혔다”고 하였고, 『정다산전서』 등(표 3 참조)에 바닷가 괴석을 주워 연못 가운데 돌을 쌓아 섬을 만들고 봉우리 셋을 세운 후 소나무도 한 그루도 심었으며, 쌓은 괴석 18개 괴석의 형상을 시에서 묘사해 놓고 있다. 이 도서형 지중 석가산은 정약용이 조성할 때는 무기연당과 유사하게 침석한 형태로 보이며, 현대에 와 보수과정에서 섬 호안이 현재와 같이 반듯하게 축적되어졌다. 현재 몇 개의 작은 괴석만이 섬 위에 보인다(그림 8b 참조).

도서형 침석과는 달리 지중에 괴석만 치석한 형태도 있는데,

표 3. 지중형 석가산

구분	원전구문	문헌명	관련 핵심어
나재별서	終南別墅 有泉出於南 牆外石縫 甘香冷冽 乃於廳事前 鑿池儲流 種以芙蓉 取怪石作假山於其中 種松杉黃楊老而矮小者 又測泉之出石縫處 高於地面三尺許 … 流爲瀑布凡二級 落於池水 … 此池周僅數丈 深僅數尺 山高五尺 周七尺 瀑流二尺餘	나재집 권 1 석가산폭포기	石假山 瀑布 池中設假山
	齋之軒前 引流爲池 池中設假山 環奇可觀 余與子俊 叔強同賞	허백당보집 권 3 남세창편집 시	
미상	庭有小池 中置怪石 象海山 意思空闊可喜 縹緲奇峰卷石堆 綠波環繞小池開 一庭嶽瀆分形在 萬里蓬瀛取象來 鳥鳴鵲飛窮渤澥 魚疑鼉戴出崔嵬 只須好作方塘看 雲影天光照得回	금석집 권 4 시	中置怪石 方塘 蓬瀛
다산초당	一日散步梅下 … 由來亭東池 狹小如確白 拓展抵山根 斫藪蒙叢 … 怪石拾海濱 峯巒象岫巖 或謠如螺螄 或瑩如瓊玖 …	다산시문집 권 5 시	蓮池 石假山 三峯
	茶山窈窕橘園西 千樹松中一道溪 正到溪流初發處 石間瀟灑有幽棲 小池眞作草堂顏 中起三峯石假山 差次百花常繞砌 水心交繡鷓鴣斑	다산시문집 권 5 다산화사	
	沙灣怪石聚爲峯 眞面環輪飾假容 巖岬巧安三級塢 豁卻因插一枝松 蟠廻詭態蹲芝鳳 尖處斑文聳 攢龍 複引山淺環作沼 靜看水低翠重重	정다산전서 상 다산사경첩 연지석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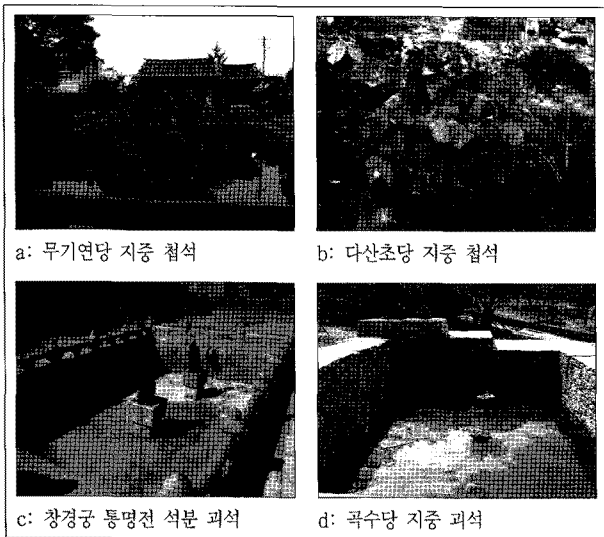


그림 8. 지중형 석가산



그림 9. 하천정도
자료: 함안박물관 소장

조선 초 창경궁 통명전 서편 석지에 설치한 세 석분 중 2기에 괴석이 담겨 있고, 조선 중기 윤선도의 보길도 곡수당 방지에는 3개의 지중괴석이 못 바닥에 세워져 있다(그림 8c, 8d 참조).

4) 치석형

치석은 광의적으로는 모든 경석의 배치를 의미하나, 본 연구에서는 협의적 의미의 측면에서 문헌상 괴석 개체를 석가산으로 상징화시켜 지표에 세우거나 넓혀 뜰에 포치한 괴석형태와 현존하는 일부 고정원의 치석 형태에 국한하여 제시하였다. 치석은 괴석을 1개 또는 2~3개 이상을 지표상에 식석(植石)하는 포치형태에 따라 특치 또는 단치, 군치, 산치로 구분된다⁹⁾. 특치는 보통 뜰에 한 개를 치석하여 강조적 점경물로 이용되며 보통 수직으로 세운다. 산치(그림 12d 참조)는 괴석 간 간격을

두고 포치하는 것이고, 군치(그림 12e 참조)는 여러 형태와 크기의 괴석을 기부 있게 평면적으로 모아놓은 치석형태이다. 이러한 경석의 치석은 고구려 안학궁원이나 통일신라 안압지 등 석가산 도입 이전부터 이미 우수한 경석배치법이 국내에 발달되어 왔다. 그러나 고려 중기 석가산 도입 이후 괴석을 쌓아올린 첩석 석가산이 성행하면서 뜰에도 개체적 형태미를 갖춘 괴석을 지표에 치석해 여러 형태로 애완하였다. 첩석 석가산이 도입된 이후 괴석의 배치를 보면, 고려 예종 때 안화사 내 재궁과 고려사 의종 때 목청전에 괴석을 경석으로 치석한 것이 보인다(표 4 참조).

조선시대에는 괴석 개체도 석가산으로 부르며 괴석에완의 글들이 많이 남아 있다. 조선 궁궐의 괴석은 대부분 석분이나 석대 위에 얹혀 배치되어 있으며, 창경궁 연경당에는 지표에 세운 특치형 괴석도 일부 보인다(그림 10a 참조). 민간에서는 조선 초 이행(1478~1534)의 『용재집』 ‘삼락정기’에 “담장 아래에 오죽과 노송을 죽 심고 간간이 화초와 괴석, 남매, 일찍 피는 국화를 섞어 놓았다.(牆底列樹 烏竹古松 間以雜卉怪石)”고 한 것으로 보아 초화목 사이에 괴석을 포치한 산치형으로 추정된다(표 4 참조).

조선 중기 고산 윤선도(1587~1671)의 『보길도지』 ‘곡수당’에 “연못을 파고 ... 뒤로는 수층의 작은 계단을 만들어 꽃과 괴석을 벌려 심어 놓았다.(鑿池 ... 後面爲小階數層 列植花卉怪石)”고 한 산치형 괴석이 보이는데(표 4 참조), 현재 이 소망지 남쪽 가 2단 계단에 2개의 괴석이 복원되어 있다(그림 8d 참조).

조선 중기 김시침(1600~1670)의 『일용재집』 ‘영김형정분지 석가산’과 ‘김광정분지석가산서’에 각기 형제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석가산이 2개소 보이는데, 이 석가산은 뜰에 2개의 분지(盆池)를 설치하고 그 사이에 괴석 한 개를 세워 분지에 괴석이 비추이도록 한 특이한 형태의 특치이다(표 4 참조).

조선 후기 정약용의 『다산시문집』 ‘청시아초당기’는 다산이 1796년 봄 인척되는 해좌 정범조(1723~1801)를 방문하고 지은 기문으로 공이 새로 초당을 지었는데, “당 앞에 복숭아나무, 오얏나무, 여러 꽃과 덩굴식물 그리고 소나무 등을 많이 심고 여기에 괴석도 10여 개를 심었다(堂前多植桃李諸花蔓香怪松及怪石十餘枚).”고 한 산치형으로 추정되는 괴석 포치(표 4 참조)와, 정약용이 정조 3년(1779년)에 조익은의 별장 정곡 계정에서 지은 『다산시문집』 시에도 뒤뜰에다 산다와 석류를 각각 몇 그루씩과 국화 수십 그루를 심고 괴석 하나를 치석한 특치형 괴석도 보인다(표 4 참조). 그리고 정종로(1738~1816)의 『입재유고』 ‘석가산기’에 “인산의 동쪽 시내에 괴석이 많다. 물가에서 몇 개의 돌덩어리를 주워 산을 만들었다. 높이는 한자(약 30cm)에 미치지 않고 크기는 여덟자(약 2.4m)에 못 미친다(仁山東溪 多怪石 阿類取數塊爲山焉 高不滿尺 大不滿尋).”는 이 석가산은 윤증고택과 유사한 작은 군치형으로 추정

표 4. 치석형 석가산

구분	원전구문	문헌명	관련 핵심어
고려 목청전	入穆清殿 ... 又於內閣別室 居善樂 意欲廣治衆病 扁曰善救實 又構亭其側 聚怪石名花 扁曰養性	고려사절요 권 11 의종 10년	聚怪石
고려 안화사	安和寺 ... 其西有齋宮 ... 植花卉竹木怪石 以爲游息之玩 非特土木粉飾之功 竊窺中國制度 而景物清麗 如在屏障中	선화봉사고려도경 제 17권 정국안화사	植怪石
삼락정	三樂公既名亭 一日 遇余於亭之上 徵爲記 余曰... 亭廣袤若干楹 覆以茨 冬宜溫房 夏宜涼軒 牆底列樹 烏竹古松 間以雜卉怪石 臘前之梅 霜後之菊 又多畜古今名畫 皆可樂也 而獨以三樂名	용재집 권 9 삼락정기	間以雜卉怪石
보길도 곡수당	取適之下 有意之上 鑿池 廣與垣相等 長數間築石顏高 後面爲小階水層 列植花卉怪石	보길도지 곡수당	鑿池 列植怪石
미상	階下雙盆開鏡面 池邊一石見孱顏 ... 二箇盆池一箇石 依然水面映山顏 何能研取蓬瀛勝 惝惝君家庭院間	일용재집 영김정분지석가산	二箇盆池一箇石
미상	金君光庭於其庭中駢埋二陶盆貯水爲池 池中種青蓮 池邊四圍以石菖蒲 又於兩盆間坐石假山一塊 水草交翠 山影倒池	일용재집 김광정분지석가산서	盆間坐石假山一塊
청시아초당	丙辰春 鍾既謁告而觀荷潭之壑 歸而訪族父海左翁於懸潭之上 公新作卍堂 堂前多植桃李諸花蔓香怪松及怪石十餘枚 堂上貼墨畫行書	다산시문집 제 14권 청시아초당기	植怪石
미상	仁山東溪 多怪石 阿類取數塊爲山焉 高不滿尺 大不滿尋 余謂類曰山乎 曰山也 曰何以謂之山 曰以其體之相似也 余曰 草木生之乎 曰否	임제선생유고 권 13 석가산기	石假山 數塊爲山 高不滿尺
정곡계정	鼎谷溪亭者 曹君翊殷別業 ... 檻前有老松一樹 側挂而拂水 後庭沙地淨潔. 植山茶石榴者各數本 菊數十本 安怪石一 四壁皆墨畫山水 瀟灑無塵 可羨也	다산시문집 제 13권 정곡계정연유시서	安怪石

된다(표 4 참조). 김조순의 ‘옥호정도’에는 사랑채 앞뜰에 크고 작은 2개의 괴석이 치석된 것이 묘사되어 있다(그림 5c 참조).

현존 유적으로 충남 논산의 윤증(1629~1714) 고택 사랑채 앞뜰에 작은 군치형과 단 아래 마당에 산치형 괴석이 보이며(그림 10b, 10c 참조), 일제강점기 외암리 건재 고택에 특치, 산치의 치석형태가 남아있다(그림 10d, 10e 참조). 이밖에도 현존 여러 고경원에서 이러한 여러 치석 형태를 찾아 볼 수 있다.

5) 분형

분형은 완상가치가 높은 괴석을 분에 담아 뜰이나 실내에 배치한 유형으로 기와분, 사기분 그리고 석분 등에 괴석을 안치해 완상하였다. 분형은 분에 괴석만 앉히는 분형(盆形)과 분에 물을 채워 안치하는 분지형(盆池形)이 있다. 이 분형 괴석은 석가산이 정착화 되기 이전부터 실내에서 수석미를 감상하기 위해 애완되어 왔을 것으로 보며, 첩석 석가산의 유행과 더불어 실내, 외에서 완상하는 것이 더욱 성행하였으리라 본다.

괴석을 분에 안치해 뜰에 배치한 분형 괴석은 조선시대 궁원의 화계 및 뜰에 점경물로 다수 남아있으며, 낙선재 후원 분형 괴석에는 ‘소영주(小瀛州)’란 각자를 새겨 삼신산을 표상하고 있다(그림 11c 참조). 『조선왕조실록』 연산군 10년(1504년)에 개성부에 괴석 2백 개를 캐서 바치게 한 기록과 숙종 7년(1681년)에 가뭄이 들어 나라가 어려운 때 궁궐에 괴석을 설치한다는 사헌부 대신의 상소가 있는데, 이 괴석들이 궁원에 주



그림 10. 치석형 석가산

로 석분형 괴석을 비롯해 일부 석대에 치석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분형 괴석은 조선 초부터 화계, 전각 뜰 등에 점경물로 계속해서 설치되어 왔을 것으로 추측된다(그림 11 참조).

민간에서도 일찍이 분형 괴석이 뜰에 점경물로 놓인 것을 보면 조선 초 안평대군의 『비해당사십팔영』 중 성삼문의 ‘태봉괴석(苔封怪石)’에 “분속에 괴석이 들어 있다(怪石入盆)”고 하는 분형 괴석의 모습이 기록상 처음 보인다(표 5 참조).

조선 후기 장흔(1759~1828)의 『이이엄집』 ‘괴석’에 “매합 김상서의 집 남쪽 모퉁이에 석분 3개를 안치하여 늘어놓고 각각에 태호석을 심었는데 가운데 것이 더욱 기이하다(梅閣金尙書第南厓 列安石盆三 各植太湖石 中者尤奇).”고 한 뜰의 석분 괴석도 보인다(표 5 참조).

조선 후기 김조순의 ‘옥호정도’에도 의사랑 마당에 분형 괴석이 보이며(그림 5d 참조), 일제강점기 충남 아산 외암리 건재고택 사랑채 앞과 뜰에도 분형 괴석이 여러 개 남아있다.

분지형 괴석은 분에 물을 담아 괴석을 안치한 것으로 옥·내 외에 배치하여 완상했다. 뜰에 배치한 분지형으로는 조선 중기 한태동(1646~1687)의 『시와유고』 ‘괴석기’에 “분지에 옮겨 안치하고 괴석에 여러 꽃을 심어 뜰에 설치해 놓았다(遂安以盆池插以雜卉 用充庭實).”고 하고 있고, 조선 후기 나중경의 『비목헌집』 ‘석가산기’에도 “헌 서쪽에 물 담은 분을 놓고 그곳에 석가산을 담아 두었다(軒之西置盆貯水以安置).”고 한 분지형 괴석이 보인다(표 5 참조).

괴석을 실내에 두고 완상한 분지형을 보면, 조선 중기 채유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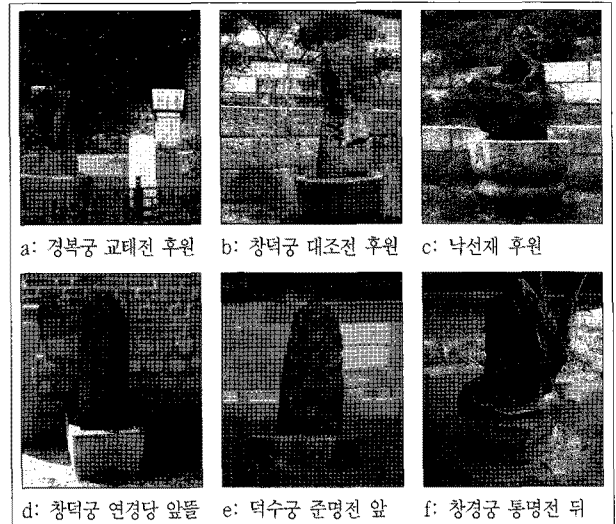


그림 11. 조선궁궐의 분형 괴석

(1599~1660)의 『호주집』 ‘우재소기’에 한양의 동쪽에 살면서 외분을 얻어와 물을 담아 석가산을 안치하고 실내에서 완상하였고, 조선 후기 한원진(1682~1751)의 『남당집』 ‘영분지석가산운’에도 집안에 괴석을 분지에 안치하고 신선이 산다는 오도(鰲島)라 부르고 석가산에 노송과 창포를 심었다고 하고 있다. 정종로(1738~1816)의 『입재집』에도 “현재장의 집에 작은 분지 안에 괴석을 안치하였는데 석가산은 높이가 수척이 되지 않으며 산 위에는 한 떨기 국화를 심어놓고 실내에서 완상하였다.”고

표 5. 분형 석가산

구분	원전구문	문헌명	관련 핵심어
분형	뜰 苔封怪石 怪石入盆心 綠苔封石上 石有潤而滋 不然苔不旺	성근보집 권 1 비해당사십팔영 병인	怪石入盆
	뜰 梅閣金尙書第南厓 列安石盆三 各植太湖石 中者尤奇 余雖不工著題 要余索詩 山骨夫何美 昂然列戶庭	이이엄집 권 9 괴석	石盆,太湖石 第南厓列安石盆
	실내 崔台甫家 有石假山 三朵峯巒 洞穴玲瓏 可愛也 欲易其一 置之書室傍 僕之家 無一物可相直者	점필재집 권 16 시	石假山 置之書室
분지형	뜰 家有石假山一座 高尺有寸周數圍 峰壑棧逕隱隱微微 … 而今而悔之收之於 荒蕪之中刮 其壘 漱其填 軒之西置盆貯水以安置	비목헌집 권 2 석가산기	石假山, 盆貯水 軒之西置
	뜰 風雷子居家 無所嗜 以花石自娛 聞族人畜二怪石 輩其一以來 貌甚奇 巒屹嶺峯 … 風雷子悅之 遂安以盆池 插以雜卉 用充庭實	시와유고 권 4 괴석	盆池 畜二怪石 用充庭實
	실내 藏得乾坤有小窩 枕邊鰲島對嵯峨 青松不老靈芝秀 世外春光獨占多(鰲島一作溟嶽○盆池着石假山上種老松菖蒲)	남당선생문집 권 1 영분지석가산운	盆池 石假山, 枕邊
	실내 於漢城之東 得一隙地而居之 余之寓也 又得小瓦盆於陶氏之家而置之牀上 盆之寓也 汲取朴氏之井之水而盛之於盆 水之寓也 以一把扇 換一石假山而 峙之乎盆之水 石之寓也	호주선생집 권 5 우재소기	瓦盆 石假山, 盆之水置之牀上
	실내 弦齋丈家有石假山 山上種菊一叢 十月開花可翫 蓋所謂山高不過數尺許 而安之於小盆池之中 而因并移置寢傍	입재선생문집 권 2 시	石假山 盆池 移置寢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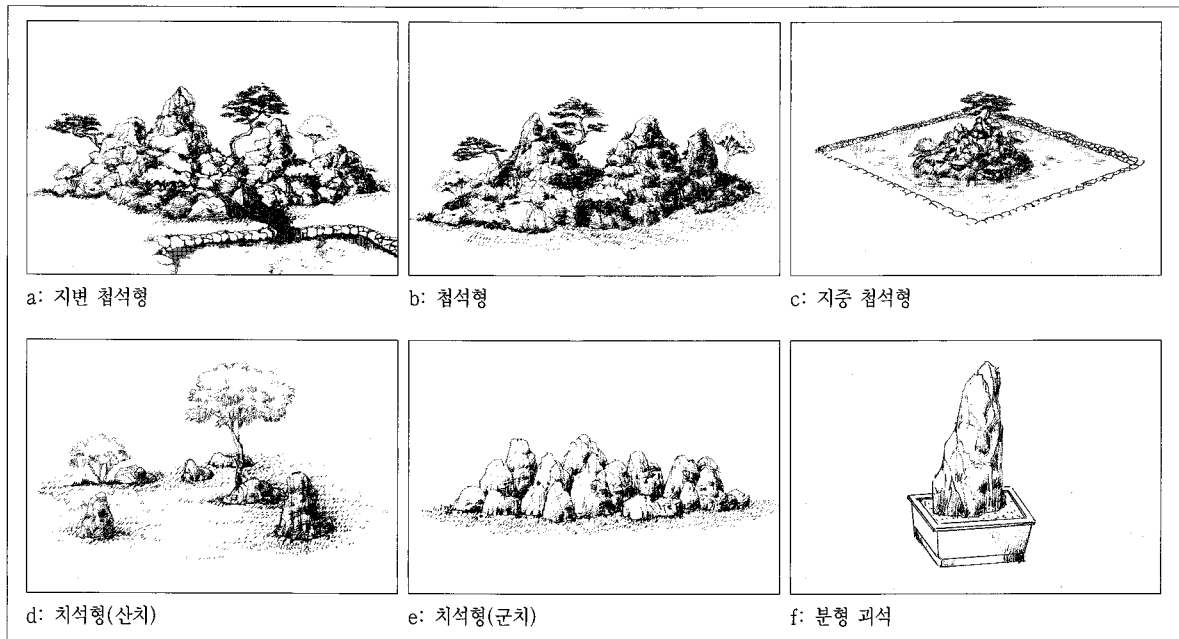


그림 12. 석가산의 유형별 모식도

하고 있다(표 5 참조).

2. 석가산의 유형적 변천상(變遷相)

석가산은 뜰에 축경적으로 괴석을 쌓아 봉우리(峯), 언덕(峙), 산등성이(巒), 골(壑), 고개(嶺), 산기슭(麓) 등 산세를 만들고 초목도 심어 진경산수 같은 생동감의 동산형 첩석 석가산이 기본 모체이다. 이 첩석구조를 기본골격으로 지면 첩석형과 첩석형 그리고 못 안에 첩석형 석가산이 만들어졌다. 이 중 유수(流水)구조의 지면 석가산은 작은 공간에 괴석을 쌓아 물도 흐르게 하고 이 물을 받아 못을 만든 가장 산수경관을 이상적으로 재현시킨 대표적인 유형이다. 이 지면 석가산은 고려시대 만월대 청연각 앞뜰에 조성된 이후 조선시대 성임의 석가산으로 계승되면서 조선 후기에는 『증보산림경제』와 『임원경제지』에 석가산 축조법이 소개될 정도로 조선시대 민간에 널리 알려졌다.

지면 석가산은 성임의 석가산과 같이 가산 뒤에 독을 설치하고 저장한 물을 석가산으로 흘러내리게 하는 형태 그리고 다산 초당, 보길도 '곡수당'에서와 같이 자연계류를 그대로 인수해 석가산으로 흐르게 하는 형태 등의 구조가 있으며, 가산 아래 이 물을 모아 못을 만들었다. 첩석형은 단지 가산에 물이 흐르지 않는 것 이외에는 지면형과 같다. 유명한 지면 첩석형이나 첩석형 석가산은 형태미가 뛰어난 괴석으로 쌓았는데, 조선 중기 조옥(1498~1557)의 『용문집』 '서재록'에 “돌을 사 산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들며, 장안의 귀인호걸들이 앞 다투어 괴석을 사다 석가산을 만들었다.”고 하고 있다. 양질의 괴석을 구

하기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어 『임원경제지』에는 일반 돌을 다듬어 쓰는 법을 기술하고 있고(표 1 참조), 『활산집』 '석가산기'(표 2 참조) 등에 일반적으로 쌓은 석가산들도 일부 보인다. 첩석형 석가산 높이는 조선 초 성임의 석가산과 조선 중기 보길도 곡수당의 석가산이 한 장(약 3m)이고(표 1 참조), 작게는 남문당의 『활산집』의 3자반(약 1.05m)으로(표 2 참조), 대개 1~3m 정도의 크기로서 주 건축물 주위에 소규모로 휴먼 스케일을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다.

이 첩석형 석가산에는 더욱 심산유곡의 운치를 높이기 위해 안개를 인공적으로 만들기도 하였다. 『조선왕조실록』 명종 18년(1563년) 8월조 이양을 탄핵하는 상소문에는 석가산에 기이한 향을 두어 안개가 뜰을 감싸게 하는 등 너무 사치스럽게 꾸몄다는 내용이 나오며, 『임원경제지』 이운지 '가산벽사기무방(假山辟蛇起霧方)'에는 석가산에 뱀도 물리치고 안개효과를 낼 수 있게 웅황로(雄黃爐)를 설치하는 방법을 중국 북송 간악 가산에 사용된 것을 인용해 기술해 놓고 있다.

이러한 전형적인 동산형 첩석 석가산은 조선시대 들어 민간에는 계승되어 성행하지만 조선 궁궐에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 첫째, 조선이란 새 왕조를 건국하면서 고려 왕조와 중국문화의 유산인 첩석형 석가산을 계승하지 않고 전조와 차별화하여 첩석 석가산 대신 화계형 동산을 궁원에 도입했다.

둘째, 첩석형 석가산은 고려시대 말에는 이미 민간에도 널리 성행하고 있는 경물이어서 민간과 차별화된 조선왕조의 권위적 궁원의 모습을 갖추고자 첩석형을 계승하지 않고 분형 위주

의 괴석만 점경물로 받아들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첩석형 석가산은 몇몇 지중 첩석을 제외하고 전형적인 첩석 골격구조는 보존되지 못하고 대부분 유실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성행하지 못했다. 그 이유로는 석가산의 구조적 측면과 소재인 괴석의 특성에서 추정해 볼 수 있다.

첫째, 석가산의 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오랜 유명 첩석 가산들은 그 소재인 태호석의 크기가 크며, 석회나 철사 등으로 고착시켜 구조적 안정감이 높는데 비해, 한국의 첩석 석가산은 작은 괴석을 생긴 그대로 짜 맞춰 쌓아 올려 붕괴에 취약하고 안정감이 떨어져 가변성이 컸다. 실제로 『고려사』 의종 6년(1152년) 4월조에 수창궁 복원에서 연회를 가졌는데 연회를 끝내려고 할 때 석가산이 무너졌다 하고 있고, 조선 초 성임의 지변형 첩석 석가산도 오래 가지 못하고 그 아들인 성세명이 다시 쌓았다.

둘째, 대개 유명 첩석형 석가산은 괴석미가 뛰어난 소재로 쌓은 석가산이었다. 고려 말 화원의 팔각전 후원 첩석형의 소재로 쓰인 괴석들이 조선시대 들어 모두 사라졌는데, 이 석가산의 괴석 중 한 개가 조선 중기 어느 사대부가에 여러 대에 걸쳐 소장되어온 사실에서 비추어 볼 때 첩석형에 사용된 괴석의 형태미적 가치와 그 유실되는 단면을 유추해 볼 수 있다(윤영환, 2009).

셋째, 품격 있는 첩석형 석가산을 조성하는 데는 많은 양질의 괴석이 소요되었다. 중국은 태호석 등과 같은 명석이 다량 생산되고 풍부한데 비해 한국은 괴석 산지가 적고 양질의 괴석을 구하기도 어려워 첩석형이 지속적으로 발달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본다.

지중형은 조선 초 채수의 도서형 첩석 석가산과 같이 폭포가 흐르는 석가산과 무기연담, 다산초당 등과 같이 단지 첩석만한 도서형 그리고 창덕궁 통명전의 석지의 분형괴석, 보길도 곡수당의 못 바닥에 안치한 지중괴석 등 다양하게 조성되었다.

치석형은 이미 석가산 도입 이전부터 경석문화가 발달해 왔으며, 석가산이 유행하면서 운치 있고 형태미가 뛰어난 괴석을 선별하여 뜰에 조성하는 여러 조성법이 발달했다. 그러나 고려시대 이규보의 『동국이상국집』 ‘손비서냉천정기’에 괴석으로 쌓은 인공 가산을 사람들이 너무 선호하는 풍조를 비평하며 원래 있던 바위를 약간 옮겨 자연스럽게 조성한 한 손비서의 원림을 칭송하는 바와 같이, 한편으로는 자연스런 치석 형태도 조선시대에 계속 공존해 왔으리라고 추측된다.

분형괴석은 일찍이 조선 초부터 분 또는 분지 속에 괴석을 십여 점경물로 뜰에 배치하거나 실내에서 완상용으로 이용되어 왔다. 또, 실내에는 특별한 완상품으로 옥가산과 연적을 겸한 석가산까지 등장했다.

이상과 같은 여러 유형들은 한 대상지에서도 복합적으로 조성되기도 하였다. 조선 중기 보길도 곡수당의 지변 첩석, 치석,

지중 괴석 등 그리고 조선 후기 다산초당의 지변 첩석, 지중 도서 등과 옥호정의 첩석, 치석, 분형 괴석 등에서 보듯이 한 원림에도 여러 유형이 나타나고 있다.

V. 결론

석가산은 한국 전통조경의 한 축으로 고려시대 구축된 석가산 문화가 조선시대로 계승, 발달된 전통경관시설의 핵심적 요소 중의 하나이다. 중국은 태호석 등 명석을 첩석하는 가산 축조법이 북송 이후부터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성행하는데, 이와 더불어 한국의 석가산도 시대적으로 발달을 같이 하고 있으나 한국의 석가산은 중국의 거대한 첩석 가산과는 달리 작은 동산형 석가산을 뜰에 조성하여 축경적인 산수를 모사하고 괴석 개체도 석가산으로 상징화시켜 부름과 사의적이고 더 추상적으로 관념화되어 변천하면서 독특한 한국적 석가산 문화의 창조적 장을 열었다.

고려 중기 본궐 청연각 앞뜰에 처음 첩석형 석가산이 조성된 이후 민간에도 널리 성행되면서 조선시대 들어 그대로 계승된 이 첩석형을 골격으로 하여 여러 형태의 석가산 유형이 발달하였다.

한국의 석가산은 이 첩석 위주의 집체적 석가산이 기본 구조적 형태이나 조선 초부터 괴석 개체도 석가산으로 관념화시켜 뜰에 포치하는 괴석이나 분에 올려 실, 내외서 완상하는 분형 괴석 등도 석가산 범주에 편입되어 발달, 변천하는 양상을 보였다.

첩석형 중 지변 첩석형은 좁은 공간에 가장 산수경관을 이상적으로 재현시킨 전형적인 석가산 유형으로 붕과 골 등 산세를 만들어 동태감(動態感)을 주고 가산에 초목, 유수(流水), 폭포도 조성하여 활력과 생기를 불어 넣었다.

고려시대에는 궁궐과 민간에 널리 첩석형 석가산이 성행되지만 조선시대 들어 조선궁궐에서는 이 첩석형은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괴석을 분에 안치 화계나 뜰에 점경물로만 도입하였으며, 석가산 문화는 주로 민간에서 널리 보편화되어 성행되었다.

우리 선조들은 괴석을 이용해 진산을 모사한 석가산을 만들어 삼산오악(三山五嶽)을 표상하여 선계를 상징하기도 하고, 진경산수에서 느낄 수 있는 심산유곡의 흥취와 요산요수(樂山樂水)의 교훈도 취했다. 한국의 전통석가산은 괴석 몇 덩이 놓고도 진경산수를 느낄 수 있는 심미적 체험은 물론 이미 경물 자체의 형식미를 초월하며 자연산수의 심오한 상징성을 지닌 경물로 발전하면서 한국적 석가산 문화를 정착화 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석가산 문화가 현대에 와서 극히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그 맥이 단절되었고, 특히, 석가산의 기본형인 첩석형 석가산의 전형적 형태는 찾아 볼 수 없으며 대부분 소실되었다.

이렇게 전형적 첩석형이 보존되지 못하고 대부분 소실된 데에는 한국 석가산의 구조적 취약성과 가변성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사료적 자료에 기초한 실증적 연구를 통해 석가산의 유형적 양상과 변천과정 등의 정체성이 구명됨으로서 석가산의 현대적 계승과 일부 유적의 복원 및 재현이 가능해졌으며, 향후 한국적 석가산 문화의 전통성을 회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도약의 기틀이 마련되어졌다고 할 수 있다.

- 주 1. 민인백(1552~1626)의 『태천집』 권 3 '조천록'에는 선조 28년(1595년) 중국 명나라 때 소주 지방을 견문하면서 태호석을 쌓아 굴곡지고 동굴 진 거대한 석가산의 모습 등을 소개하고 있다.
- 주 2. 조선 초 김종직(1431~1492)의 『점필재집』 권16 시에 “최태보의 집에 석가산 세 덩이가 있는데, 봉우리와 동혈이 영롱하여 사랑스러웠다. (崔台甫家有石假山三朵峯巒洞穴玲瓏可愛也)”고 하면서 그 중 석가산 한 덩이를 집안에 두고 싶어 하는 내용으로 괴석 개체를 석가산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 처음 보인 이후 괴석덩이 자체도 석가산으로 관념화시켜 널리 부르고 있다.
- 주 3. 조선 초 『양화소록』을 비롯해 많은 문헌에서 괴석의 기괴한 형태와 심미성을 기술하고 있다. 괴석의 형태미적 가치 판별은 매우 추상적이기는 하나, 본 논문에서는 문헌에 괴석이 실제 뜰 등에 경석으로 사용되면서 석가산 또는 석가산 개념으로 적시된 것을 추출하여 그 조사대상으로 하였다.
- 주 4. 북한 '김일성대학 안압구 발굴보고서'를 인용한 안학궁원의 인공산을 정동오(1986)는 축산(築山), 리화선(1989)은 인공적인 산(가산), 그리고 정재훈(2005)은 조산(造山)으로 각각 표기하고 있다.
- 주 5. 조선 전기의 문신이며 본관은 창녕, 호는 일재 또는 안재이고, 성염조의 장남으로 공조판서, 좌참찬, 중추부지사 등을 지냈다. 한양 인왕산 자락의 이 원림 저택은 조부로부터 아들 세명대까지 대를 이어가며 살았다. 『허백당집』 '석가산부'를 지은 성현(1439~1504)은 성임(成任)의 동생이다. 이 성임의 석가산은 1466년에서 1471년 사이 조성한 것(이종목, 2005)으로 추측된다.
- 주 6. 『임원경제지』(일명 임원십육지)는 조선 후기 홍만선(1643~1715)의 『산림경제』를 영조 42년(1766년) 유중립이 『증보산림경제』에 보완하고 이를 다시 서유구(1764~1845)가 『임원경제지』로 재보완한 농서이다. 유중립은 『산림경제』에는 없는 석가산 축조법을 '석가산'이란 소표제를 부쳐 새로 추가해 놓았고, 여기에 서유구가 유중립의 '석가산' 소표제를 '지변석가산법'이라 다시 고치면서 석가산에서 물이 방지에 흘러드는 모습과 주변 경관 등의 내용을 추가해 놓았다.
- 주 7. 중국 후한의 관우를 제사하는 묘우로서 남대문 밖에 있다하여 남관왕묘 또는 남묘라 하였다. 서울 용산구 후암동(옛 명 도동)에 조선 선조 31년(1598년)에 세워진 후 화재로 2차례 복원했으나 6·25 전쟁 때 소진되어 1957년에 다시 지은 것을 1978년 현재 동작구 사당동으로 이전하면서 뒤뜰에 있던 석가산을 사당 앞뜰 화강석 1단 기단에 치석형태로 옮겨놓았다.
- 주 8. 양산보의 손자인 양천운(1568~1637)의 '소쇄원계당중수상량문'에 의하면 “석가산의 편편에는 시가 씌어 있고 글자마다 우의적인 뜻을 담고 있다. (石假有山 面面題詩 字字寓意)”고 하고 있다.
- 주 9. 정재훈(2005)은 안압지의 치석기법을 특치, 산치, 군치, 첩치 등 네 기법으로 되어 있다 하였다. 중국 원림에서 보면 강대로(岡大路, 1987)는 경석의 배치법에는 특치, 군치, 산치, 첩치 4가지가 있다는 낙가조(樂嘉藻)의 분류를 인용했고, 또 저초생·진장덕(檜椒生·陳樟德, 1988)은 인공산을 조성하는 축산에는 가산, 치석, 첩산이 있는데, 이중 치석법은 특치, 군치, 산치로 나눈다 했으며 석가산을 첩

산이라 하고 있다. 국내 경석 배치법이 용어적으로 정립된 것은 옛 문헌에서 찾을 수 없으나 이 논문에서는 적시된 치석 수석의 미가 이 같은 한자권 분류와 부합해 이 분류를 활용하였다.

- 주 10. 조선 제21대 영조(1694~1776) 서거 직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하환정도(何換亭圖)'는 일명 국담(菊潭)이라 부르는 무기연당 연못가에 세운 정면 2칸, 측면 2칸 크기의 정자를 주제로 그린 고도로 주제성의 후손 주환체 씨가 소장해 오다 현재 함안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인용문헌

1. 국사편찬위원회(국역) 조선왕조실록. 관찬. <http://sillok.history.go.kr/inspection>.
2. 국립중앙도서관(1958) 일용재집(영인본). 김시집 저. G3648-10-373.
3. 국립중앙도서관(1961) 비록헌집(영인본). 나중경 저.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 G3046.
4. 국립중앙도서관(1996) 동문선(영인본). 서거정 등 저. G1-1999-310.
5. 국립중앙도서관(1998) 호주집(영인본). 채유후 저. M301-1998-302.
6. 국립중앙도서관(간사년미상) 기언별집(영인본). 허목 저. G3648-91-9.
7. 김성우, 안대회 역(1993) 원야. 계성 저. 서울: 도서출판 예경.
8. 김영민 역(1987) 중국정원론. 강대로 저. 대구: 중문출판사.
9. 대동문화연구원(1960) 연행기(영인본). 서호수 저.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0. 대양사적(1973) 목은집시고(영인본). 이색 저. 서울: 대양서적.
11. 동국대학교출판부(1989) 풍계집(영인본). 명찰 저.
12. 리화선(1989) 조선건축사. 평양: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3. 문헌편찬위원회(1960) 정다산전서(영인본) 정약용 저.
14. 민족문화추진회(1976a) 동문선(국역). 김연 저. 청원각. 한국문집총간.
15. 민족문화추진회(1976b) 동문선(국역). 박인량 저. 한국문집총간.
16. 민족문화추진회(1977) 동사강목(영인본). 안정복 저. 한국문집총간.
17. 민족문화추진회(1983) 다산시문집(영인본). 정약용 저. 한국문집총간.
18. 민족문화추진회(1985) 고려사절요(영인본). 김중서 등 저. 한국문집총간.
19. 민족문화추진회(1989a) 너계집(영인본). 유호인 저. 한국문집총간.
20. 민족문화추진회(1989b) 보한재집(영인본). 신숙주 저. 한국문집총간.
21. 민족문화추진회(1989c) 성근보집(영인본). 성삼문 저. 한국문집총간.
22. 민족문화추진회(1989d) 사가집(영인본). 서거정 저. 한국문집총간.
23. 민족문화추진회(1989e) 식우집(영인본). 김수은 저. 한국문집총간.
24. 민족문화추진회(1989f) 이요정집(영인본). 신윤개 저. 한국문집총간.
25. 민족문화추진회(1989g) 점필재집(영인본). 김종직 저. 한국문집총간.
26. 민족문화추진회(1989h) 점필재집(영인본). 김종직 저. 한국문집총간.
27. 민족문화추진회(1989i) 추강집(영인본). 남효은 저. 한국문집총간.
28. 민족문화추진회(1989j) 회락당고(영인본). 김안로 저. 한국문집총간.
29. 민족문화추진회(1989k) 허백당집(영인본). 성현 저. 한국문집총간.
30. 민족문화추진회(1990) 첨모당문집(영인본). 임운 저. 한국문집총간.
31. 민족문화추진회(1991a) 노에집(영인본). 유도원 저. 한국문집총간.
32. 민족문화추진회(1991b) 동강집(영인본). 김우옹 저. 한국문집총간.
33. 민족문화추진회(1991c) 심전고(영인본). 박사호 저. 한국문집총간.
34. 민족문화추진회(1991d) 태천집(영인본). 민인백 저. 한국문집총간.
35. 민족문화추진회(1996) 해동역사(영인본). 한치윤 저. 한국문집총간.
36. 민족문화추진회(1997) 나재집(영인본). 채수 저. 한국문집총간.
37. 민족문화추진회(1998a) 남당집(영인본). 한원진 저. 한국문집총간.
38. 민족문화추진회(1998b) 저촌유고(영인본). 심육 저. 한국문집총간.
39. 민족문화추진회(1999a) 입재집(영인본). 정종로 저. 한국문집총간.
40. 민족문화추진회(1999b) 해좌집(영인본). 정범조 저. 한국문집총간.
41. 민족문화추진회(2000) 근재집(영인본). 안축 저. 한국문집총간.
42. 민족문화추진회(2002) 풍고집(영인본). 김조순 저. 한국문집총간.
43. 민족문화추진회(2005) 이이엄집(영인본). 장문 저. 한국문집총간.
44. 박경자(2008) 조선시대 석가산 연구. 서울: 학연문화사.
45. 보경문화사(1983) 임원경제지(영인본). 서유구 저.
46. 삼봉정도전선생기념사업회(2009) 삼봉집(영인본). 정도전 저.

47.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6) 국조보감(영인본). 신숙주 등 저.
48. 심우경, 이창호, 심현남 역(2008) 중국의 전통조경문화. 장지아지 저. 서울: 문운당.
49. 아세아문화사(1976) 용재집(영인본). 이행 저.
50. 아세아문화사(1981) 증보산림경제(영인본). 유증립 저. 농서3.
51. 완도군(1981) 보길도 윤고산 유적 답사보고서. p.46.
52. 유병립, 황기원, 박종화(1989) 조선조 정원의 원형.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부설 환경계획연구소: 38-39.
53. 유영봉 역주(2004) 안평대군에게 바친 시(원제 비해당사십팔영). 서울: 도서출판 다운샘.
54. 윤국병(1982) 문수원 정원의 시대적 배경. 한국정원학회 1(1): 77-83.
55. 윤국병(1983) 지형의 변화를 얻기 위한 석가산. 계간 조경 제2호: 96-98.
56. 윤영환(2009) 고려시대 석가산의 시원적 고찰. 한국전통조경학회지 27(4): 10-18.
57. 이병훈 역(2005) 양화소록. 강희안 저. 서울: 을유문화사.
58. 이은창(1983) 조선시대 별서정원: 우규동의 소한정을 중심으로. 효성여자대학교 논문집 제27집: 217-260.
59. 이종묵(2005)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집안으로 끌어들이 산수. 서울: 소명출판사.
60. 저초생, 진장덕 편저(1988) 원림조경도설. 상해: 상해과학기술출판사.
61. 정동오(1990) 동양조경문화사.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62. 정동오(1986) 한국의 정원문화. 서울: 민음당.
63. 정재훈(1990) 보길도지(영인본). 윤선도 저. 보길도 부용동 원림. 서울: 열화당.
64. 정재훈(2000) 소쇄원. 서울: 대원사.
65. 정재훈(2005) 한국전통조경. 서울: 도서출판 조경.
66. 조동원, 김대식, 이경록, 이상국, 홍기표 역(2005) 고려도경. 서궁 저. 서울: 향소자리출사.
67. 한국고전영인대보(1982) 동국이상국전집(영인본). 이규보 저. 서울: 명문당.
68. 한국국학진흥원(간사미상) 응와집(영인본). 이원조 저. <http://www.koreastudy.or.kr>.
69. 한태동(1763) 시와유고(영인본). 조선총독부고서분류표. 국립중앙도서관 고조46.

원 고 접 수 일: 2010년 5월 6일
 심 사 일: 2010년 6월 14일(1차)
 2010년 6월 30일(2차)
 개 재 확 정 일: 2010년 7월 5일
 3 인 의 명 심 사 필